

##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수준과 고령자 고용률 비교

○ OECD 30개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수준을 비교하면, 2007년 기준 GDP 대비 1.7%로 멕시코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단위 : %)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변화 1990~2007	정부지출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1990	1995	2000	2005	2007		1990	2007
호주	3.0	3.6	3.8	3.3	3.4	11.2	8.6	10.1
오스트리아	11.4	12.3	12.3	12.5	12.3	7.8	22.1	25.3
벨기에	9.1	9.4	8.9	9.0	8.9	-2.9	17.4	18.3
캐나다	4.2	4.7	4.3	4.2	4.2	-1.2	8.5	10.6
체코	6.1	6.3	7.5	7.3	7.4	21.8		17.5
덴마크	5.1	6.2	5.3	5.4	5.6	8.6	9.2	10.9
핀란드	7.3	8.8	7.7	8.4	8.3	13.3	15.1	17.5
프랑스	10.6	12.0	11.8	12.3	12.5	17.5	21.5	23.9
독일	9.0	10.7	11.2	11.5	10.7	19.1		24.5
그리스	9.9	9.6	10.7	11.7	11.9	20.9		26.3
헝가리	-	-	7.4	8.6	9.1	-		18.3
아이슬란드	2.2	2.4	2.2	2.0	1.9	-14.7		4.5
아일랜드	3.9	3.5	3.1	3.4	3.6	-7.7	9.0	9.7
이탈리아	10.1	11.3	13.6	14.0	14.1	38.9	19.1	29.4
일본	4.9	6.1	7.4	8.7	8.8	80.5		27.0
<b>한국</b>	<b>0.7</b>	<b>1.2</b>	<b>1.4</b>	<b>1.5</b>	<b>1.7</b>	<b>130.5</b>	<b>3.7</b>	<b>5.7</b>
룩셈부르크	8.2	8.8	7.5	7.2	6.5	-19.8	21.6	18.1
멕시코	0.5	0.7	0.9	1.2	1.4	202.0		7.2
네덜란드	6.7	5.8	5.0	5.0	4.7	-29.8	12.2	10.4
뉴질랜드	7.4	5.7	5.0	4.3	4.3	-41.8	14.0	10.9
노르웨이	5.6	5.5	4.8	4.8	4.7	-16.6		11.4
폴란드	5.1	9.4	10.5	11.4	10.6	107.0		25.2
포르투갈	4.9	7.2	7.9	10.3	10.8	119.8		
슬로바키아		6.3	6.3	6.2	5.8			17.0
스페인	7.9	9.0	8.6	8.1	8.0	1.5		20.5
스웨덴	7.7	8.2	7.2	7.6	7.2	-6.8		14.1
스위스	5.6	6.7	6.6	6.8	6.4	14.2	18.6	19.9
터키	2.4	2.7	4.9	5.9	6.1	159.2		
영국	4.8	5.4	5.3	5.6	5.4	11.0	11.6	12.0
미국	6.1	6.3	5.9	5.9	6.0	-1.5	16.4	16.3
전체(30개국)	6.1	6.7	6.8	7.1	7.1	6.1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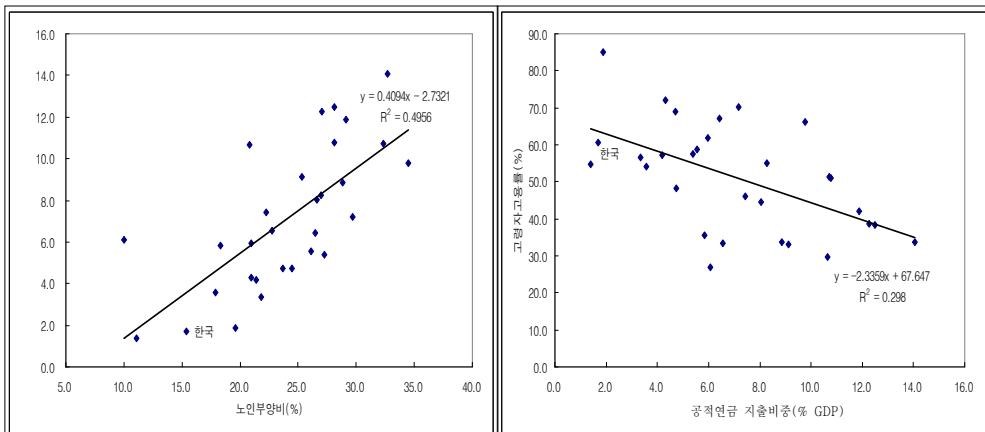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1 :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 인구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수준은 GDP의 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증가율(1990~2007년)은 130.5%로 멕시코(202%), 터키(159.2%)에 이어 셋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도입이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고 성숙도 또한 낮은 점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한 안정된 노후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연금지급 규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또한 시급함.

○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 지출수준과 노인부양비 및 고령자 고용률을 비교하면, 노인부양비가 높은 국가일수록 공적연금 지출수준이 증가하고, 반면 공적연금 지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15.3%로 비교대상 30개국 중 인구고령화 정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하는 반면, 일본,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는 30%를 상회하고 있어 인구고령화 정도가 높음.
- 노인부양비가 25%를 상회하는 15개국(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등)의 평균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9.4%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노인부양비 20% 미만의 6개국(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등)의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3.4%로 낮게 분석됨.

[그림 1] 공적연금 지출수준과 노인부양비 및 고령자 고용률의 관계



OECD,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표 2〉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 지출수준과 고령자 고용률 비교

(단위 : %)

	노인부양비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고령자 고용률
호주	21.8	3.3	56.6
오스트리아	27.1	12.3	38.6
벨기에	28.8	8.9	33.8
캐나다	21.4	4.2	57.1
체코	22.3	7.4	46.0
덴마크	26.1	5.6	58.7
핀란드	27.0	8.3	55.0
프랑스	28.1	12.5	38.3
독일	32.3	10.7	51.3
그리스	29.1	11.9	42.1
헝가리	25.4	9.1	33.1
아이슬란드	19.6	1.9	84.9
아일랜드	17.9	3.6	54.1
이탈리아	32.7	14.1	33.8
일본	34.5	9.8	66.1
<b>한국</b>	<b>15.3</b>	<b>1.7</b>	<b>60.6</b>
룩셈부르크	22.8	6.5	33.4
멕시코	11.1	1.4	54.7
네덜란드	23.7	4.7	48.3
뉴질랜드	20.9	4.3	72.0
노르웨이	24.5	4.7	69.0
폴란드	20.8	10.6	29.7
포르투갈	28.1	10.8	50.9
슬로바키아	18.3	5.8	35.7
스페인	26.6	8.0	44.6
스웨덴	29.7	7.2	70.1
스위스	26.5	6.4	67.2
터키	10.0	6.1	26.9
영국	27.2	5.4	57.4
미국	21.0	6.0	61.8
전체(30개국)	24.0	7.1	51.1

주 : 1) 노인부양비는 20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고령자 고용률은 55~65세 연령층의 고용률을 의미함.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 공적연금 지출수준이 10%를 상회하고 있는 7개국(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의 55~64세 연령층의 평균 고용률은 40.7%, 5~10% 미만 14개국(일본, 헝가리, 벨기에, 핀란드 등)의 고령자 고용률은 49.3%로 비교적 낮은 반면, 5% 미만 9개국(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 등)에서는 61.9%로 높게 나타남.
-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급여의 포괄성과 적절성)는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미성숙은 생계유지를 위해 노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최근 우리나라의 4, 50대 여성고용률이 20대 고용률을 추월(2011년 2/4분기 기준)하는 매우 이례적 현상이 발생한 배경에는 공적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미성숙으로 인해 노후대책의 한 방편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KLI**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